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9월 10일(일)

윤석열 대통령, G20 정상회의 계기

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(9.10)

- 경제안보 및 항공 우주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-
-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위한 공감대 확인 -

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9/10 일, 현지시간) 오후 「조르자 멜로니(Giorgia Meloni)」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

※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계기 약식회담(23. 5. 17.) 및 BIE 총회(23. 6.), NATO 정상회의(23. 7.) 시 조우

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(戰) 과정에 대한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,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, 양국 간의 그간 협력을 기반으로 방산,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 특히, 멜로니 총리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(ADEX)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의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.

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,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

아울러, 대통령은 한류가 약 20년 전 처음 소개되었던 이탈리아가 이제는 유럽 내 한류 거점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, 문화 선진국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춘 이탈리아와의 문화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양국 국민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

양 정상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'전략적 동반자 관계' 강화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

 $\langle \frac{17}{E} \rangle$